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1월 2일(목) 조간 (1.1. 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12. 31. / (총 9매)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과 장	이 상 희	전 화	044-202-3465
담 당 자	김 성 겹		044-202-3460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 기존 서비스 이용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 접수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1월 2일(목)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 (붙임1)

-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19년)에서 45만 명(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 >

	2019년	2020년	비고
사업 종류	돌봄기본종합,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자원연계 등 6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6→1개 사업으로 통합
대상 노인	35만 명 (기본) 독거 29.5만명 (종합) 등급외A·B 4.8만명	45만 명 저소득* 돌봄필요 노인 *국민기초생활, 기초연금수급자 등	+10만 명
수행 기관	2,805개소 (기본) 복지관 등 245개 (종합) 방문요양 등 2,583개<지장>	647개소 (사회복지·비영리법인 위탁 등)	생활권역별 책임기관제

	2019년	2020년	비고
서비스 내용	단순 안부확인·가사지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안전·사회참여·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다양화, 욕구 중심 맞춤제공
수행 인력	1.2만 명	2.8만 명 전담사회복지사 약 2,000명 생활지원사 약 2만6000명	신규 창출 일자리 수 +1.6만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사례

(현재) A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 이용 중, 최근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어야하는 상황

(개편 후) 어르신의 상태·욕구 조사를 통해 필요 시 안부확인, 후원연계 및 가사지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음.

②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개인별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 사례

(욕구) B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되었으나 주4회 이상 경로당에 출입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최근 들어 귀가 잘 안 들리고 무릎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을 나가는 것도 버거워지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음.

(서비스)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주1회, 전화 주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병원동행(월2회)

▶ 사례

(욕구) C 어르신은 고령부부노인으로 그간에는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제외되었음.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하여 가사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E어르신은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있고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서비스) 주기적인 가사지원(주2회, 월 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

③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하였다.
-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현재) D 어르신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 중,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 제공기관에 문의해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외에 정보는 얻기 어려운 상황임.

(개편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후원 등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하여 어르신의 불편이 해소됨.

④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 사례

(현재) E 어르신은 사회적 교류가 없고 집안에서만 생활하여 점점 근력이 소실되고 우울감이 늘어가고 있음.

(개편 후) 집 근처 가까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주1회 방문하여 건강운동 교육과 우울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됨.

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된다.

-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년)으로 확대 추진 한다.
- 수행기관 등에서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사례

(욕구) F 어르신은 수년전부터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되었다. 곰팡이·쓰레기 문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으며 공적 지원 등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비스) 특화서비스 대상으로 개별사례관리 실시(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등)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 수행기관 정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1661-2129) 또는 누리집 (www.1661-2129.or.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 등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이 노인돌봄전달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개선 필요사항과 어려움을 들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붙임 > 1. 2019년 노인돌봄사업 6개 개요
2.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요

붙임 1

2019년 노인돌봄사업 6개 개요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약 29만5000명)
- **(내용)** 정기적 안부확인(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전달체계)** 현황조사(제공기관 244개소)→서비스 동의(노인)→대상자 선정(지자체)→서비스 제공(제공기관)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 **(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외 AB자 중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약 4만8000명)
- **(내용)** 식사, 청소 등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36시간) 등 제공
- **(전달체계)** 등급판정(건보공단, 노인이 신청)→등급제외 시 서비스 안내(공단)→서비스 신청(노인)→대상자 선정(지자체)→바우처 카드 발급(금융기관)→본인부담금 선납(노인)→서비스 제공(제공기관 2,129개소)

3 단기가사서비스(바우처)

- **(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약 1000명)
- **(내용)** 식사도움, 외출동행, 취사, 청소 등 가사·일상생활 지원
- **(전달체계)** 서비스 신청(노인)→대상자 선정(지자체)→바우처 카드 발급(금융기관)→본인 부담금 선납(노인)→서비스 제공(제공기관 685개소)

4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 **(대상)**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약 7000명)
- **(내용)** 독거노인에게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자조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전달체계)** 제공기관 발굴 및 사업 공모 신청(지자체)→사업 지자체 선정(복지부)→대상자 발굴(제공기관 115개소)→서비스 제공(제공기관)

5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 **(대상)** 65세 이상 초기 독거노인 및 잠재 독거위험 노인(약 600명)
- **(내용)**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전달체계)** 제공기관 발굴 및 사업 공모 신청(지자체)→사업 지자체 선정(복지부)→대상자 발굴(제공기관 10개소)→서비스 제공(제공기관)

6 지역사회 자원연계

- **(대상)**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 A·B자(약 7000명)
- **(내용)** 종합상담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의료·복지 등), 보건·복지 정보 제공
- **(전달체계)** 등급판정 및 서비스 안내(건보공단)→서비스 신청(노인)→대상자 선정(지자체)→서비스 제공(제공기관 22개소)

붙임 2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서비스 제공절차

- (신청접수 및 발굴)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하여 읍·면·동 창구기능 강화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대상자 선정)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노인가구 방문,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 및 시·군·구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상담을 통해 수립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실시
- (재사정)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

< 서비스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 서비스 내용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게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164개 지역)

□ 서비스 제공체계

-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7개소)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채용(약 2만8000명)
 - (전담사회복지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업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일 8시간 근무)
 - (생활지원사) 직접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일 5시간 근무)
- (지원인력) 노인가구 방문 시 안전 문제 등 동행방문, 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업무지원 인력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투입